

무왕(武王, 1738-1765) 시기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확장 추이: 제국으로 가는 길, ‘잠식지계(蠶食之計)’와 ‘이만공만(以蠻攻蠻)’의 변주*

최 병 욱**

I. 머리말

베트남의 메콩 델타 획득 역사에서 1753년이 갖는 의미가 크다. 이 해는 캄보디아를 지칭하는 ‘진랍(真臘)’이 베트남의 정사(正史)에 출현하기 시작하는 때(1658)로부터 95년이 지난 시점이다. ‘하부캄보디아(캄보디아 크롬)’에 해당하는 이 광대한 땅이 베트남의 영토로 편입되는 계기는 1679년 양언적(楊彦迪 Dương Ngạn Dích 즈영안딕)과 진상천(陳上川 Trần Thượng Xuyên 쩌트영쑤엔)이 이끄는 명 이주민 집단의 미토, 비엔호아 정착이었다. 이 유민들은 내분, 반란, 전쟁 등을 거치면서 진상천 휘하로 통합되어 베트남의 메콩 델타 진출에 선봉대 역할을 했다. 이들을 이용해 가면서 남부 베트남의 응우옌 정권은 비엔호아, 사이공을 포괄하는 진변영(鎭邊營), 번진영(藩鎭營)을 설치했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7-361-AM0013). 2016년 8월 한국동남아시아 학회 학술대회(서강대학교)에서 이 글의 초안이 “무왕(武王) 시기 베트남의 메콩 델타 경략, 1753-1757”란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음.

** 인하대 사학과. choibungwookls@gmail.com

고 1732년에는 용호영(龍湖營)이 현재의 빈롱 지역에 두어져 막구(鄭玖 Mạc Cửu 막끄우)가 관할하던 하띠엔(Hà Tiên 河僊)과 연결되는 브이(V) 모양의 선이 완성되었다. 최병욱은 이를 비엔호아로부터 하띠엔에 이르는 ‘긴 띠’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최근의 베트남-캄보디아 국경 관련 연구에서 부득리엠은 이를 “자딘-하띠엔 복도(Gia Định-Hà Tiên corridor)”라 부르는 시도를 하고 있다(최병욱 2014: 78; Vũ Đức Liêm 2016: 82). 어떤 표현을 쓰든 간에 1732년까지 베트남의 캄보디아 영토 획득이 캄보디아를 남해로부터 격리하는 선을 만드는 과정이었다는 건 중요하다. 그런데 1753년부터 시작된 무왕(武王 Võ Vương 보브영, 묘호는 世宗) 때의 델타 경략은 캄보디아 중심과 격리된 지역들을 베트남 영토로 편입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더해 띠 바깥 즉 캄보디아 방향으로 영토가 대폭 확대되는 것도 인상적이다.

이 작업은 용문 집단이 소멸된 이후 베트남 군대의 자력으로 이루어졌음이 주목된다. 사이공에 12년간을 머물면서 본토로부터 격리된 캄보디아 땅을 추려내 베트남 판도에 담았던 작업을 주도한 사람은 완거정(阮居貞 Nguyễn Cư Trinh 응우옌쑤쥘, 1716-1767)이라는 특출한 인물이었다. 남부베트남 혹은 자딘(Gia Định 嘉定) 개척사를 논할 때는 완거정이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 앞선 시절에는 용문의 지도자 진상천과 하띠엔을 건설한 막구 등 두 ‘중국인’이 자딘 개척의 주역이었다. 완거정은 이들에 비해 메콩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게 반세기 넘게 늦지만 ‘베트남인’ 혹은 ‘안남인’으로서 남부의 영토 확장에 공헌했다. 두 중국인은 이주민으로서 바다를 통해 캄보디아로 들어가 땅을 개척하고, 이후 베트남에 그 땅을 붙였던 데 비해 완거정은 응우옌씨 정권에서 시행한 과거 시험에 합격해 고위 관료로 활동하다가 자딘으로 파견되어 남부를 경영했다. 말하자면 완거정은 ‘베트남인’으로서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확장을 주도한 전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그는 남쪽으로의 진출 필요성을 가장 명료하게 제안한 인물로 평가된다. “서쪽으로는 막혔고 북쪽으로 가기도 힘드니 남쪽으로의 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¹⁾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이 완거정의 배후에 무왕이 있었다. 완거정의 입신부터 남부로의 부임, 경략의 시말이 모두 무왕으로 인해, 무왕의 지배 하에서 이루어졌다. 무왕이 사망하고 나서는 완거정도 남부와 관련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이런 문제의식과 관련해서 테일러(Keith Taylor)의 시각이 주목된다. 그는 완거정의 성취를 무왕의 치세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즉 무왕의 교육제도 확대와 과거제도 정비로 인해 완거정이란 인물이 발탁된 것이고 완거정의 남부 경략 사업 참여 역시 무왕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테일러 역시 메콩 델타 경략의 구체적인 시말에 대한 기술에서는 완거정의 유능함에만 주목하고 있지 무왕의 역할을 논하지는 않는다(Taylor 2013: 331-339).

나는 18세기 중반 베트남의 영토 확장을 완거정보다는 무왕의 행적과 이념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남부의 확대’라는 렌즈가 아니라 변화하고 있던 새로운 베트남의 세계 구도 속에서 무왕 기 남부 경영의 성격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잠식지계’와 ‘이만공만’은 영토 확장을 위한 군사 전략을 넘어 무왕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다. 이 기사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완거정의 남부 경략 사업을 설명하는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즐겨 인용되어 왔다(Taylor 2013: 335-336; 최병욱 2014: 78; Vũ Đức Liêm 2016: 85). 그러나

1) Nguyễn Cư Trinh, *Sãi Vãi* (1750, 승려와 여승)(Maurice Durand Han Nom Collection, Yale Library Shelf no. AB. 383), 56-57, Vũ Đức Liêm(2016: 81)에서 재인용. ‘실록’에는 ‘승니문답(僧尼問答)’ 완거정의 ‘열전’에는 ‘승니전(僧尼傳)’으로 나와 있는 시문이다. 『大南寔錄前編』(1844.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1961)(이하 『前編』), 10: 6a; 『大南列傳前編』(1844.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1961), 5:5b.

어느 곳에서든 두 정책은 남부 경략의 방략으로 이해되었지 무왕이 형성한 새로운 세계관 또는 천하관 속에서 파악되지는 못했다.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완거정의 남부 경략이 왜 이 시기에 추진되었을까? 특히 무왕이 왜 영토 확장에 골몰했을까? 리타나는 일찍이 무왕의 메콩 경략을 두고 악화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한 바 있다. 아연전을 남발해 인플레이를 유발하고 해외 교역을 억제하던 무왕이 산지인을 꺾박하고 캄보디아를 압박하면서 메콩 델타로 진출한 것이 모두 경제적 고려 때문이었다는 것이다(Li 1998: 137-147). 설사 그런 인과관계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가 주도한 군사 행동에는 어떤 명분이 부여되었을까? 예를 들어, 1753년 캄보디아 공격 이유는 캄보디아 왕이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던 참인을 공격한 데 있었다. 이즈음 ‘잠식지계’와 ‘이만공만’이란 기사가 출현했다. 무왕 이전 세대에 있었던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캄보디아 왕위 계승 분쟁에서의 베트남의 지원, 캄보디아의 ‘침략’에 대한 응징을 위한 베트남의 군사 동원이었다. 그런데 무왕 때의 이유는 새롭다. 캄보디아에 살고 있는 참인을 캄보디아 왕이 건드리는 게 왜 무왕이 군대를 동원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가?

본문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고찰될 것이다. 첫째, 베트남 국체(國體)의 변화이다. 1744년 응우옌푹코앗(Nguyễn Phúc Khoát 阮福闊)이 스스로 ‘왕’을 칭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나는 주목한다. 체제가 달라지면 정책의 변화가 생긴다. 둘째 장에서는 이런 변화의 추이를 왕국으로서의 제도 정비 중심으로 살피겠다. 마지막 장에서는 무왕의 군사 행동과 그 뒤를 이은 영토 재 획정 과정을 다루겠다. ‘왕’의 영토 또는 ‘왕국’의 범주는 진수(鎭守, 무왕 이전 지배자들의 직책)의 관할지와 다르다. 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18세기 중반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재편이 베트남인의 관행적 남진의 결과물이 아닌, 새롭게 시작되는 제국 질서(왕국 질서가 아닌) 관념의 형성 과정 속에서 이루어

진 것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 관념이 19세기 통일 베트남의 제국 질서로 전승될 수 있는 것이라면, 19세기 베트남적 제국 질서는 홍하 델타에 근거한 리, 쩐, 레 왕조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 뿌리를 푸쭈언(Phú Xuân 富春)에 앉아 있던 무왕에 두고 있으며 그 국제 질서에서 중요한 지리적 근거는 확장된 메콩 델타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II. 무왕의 ‘왕국’ - 유사 제국의 출현

무왕은 선대 숙종(肅宗, 1725-1738)²⁾ 응우옌푹쭈(Nguyễn Phúc Trú 阮福澍)의 장자로, 직위를 계승한 해 나이가 25세였다. 남부 정권의 창립자 응우옌호앙 이래 일곱 명의 선대 권력자³⁾ 중에서는 누구도 왕을 칭한 바 없었다. 탕롱에 레 왕조의 황제가 있었고 응우옌호앙 이래 남국의 지도자들은 레 황실을 받드는 신하로 자처해 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탕롱에서 실권을 행사하고 있던 쩐(Trịnh 鄭) 씨를 타도하고 레 황실의 권위를 회복하겠다는 명분이 응우옌씨 정권의 존립 근거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679년 명나라 유민을 칭하는 광동의 해적 출신 용문 집단이 들어왔을 때 집권자는 훗날 태종(太宗, 1648-1687)으로 묘호가 추증되는 응우옌푹편(Nguyễn Phúc Tần 阮福璘)이었는데, 그의 공식적 직함은 왕이 아니라 광남의

2) 이하 묘호는 응우옌 왕조가 들어선 이후 추증된 것이다.

3) 1. 태조 응우옌호앙(Nguyễn Hoàng 阮潢, 仙王 Chua Tiên 쭈어띠엔, 1558-1613), 2. 희종(熙宗) 응우옌푹응우옌(Nguyễn Phúc Nguyên 阮福源, 佛王 Chua Sai 쭈어싸이, 1613-1635), 3. 신종(神宗) 응우옌푹란(Nguyễn Phúc Lan 阮福蘭, 上王 Chua Thượng 쭈어트엉, 1635-1648), 4. 태종(太宗) 응우옌푹편(Nguyễn Phúc Tần 阮福璘, 賢王 Chua Hiền 쭈어히엔, 1648-1687), 5. 영종(英宗) 응우옌푹잔(Nguyễn Phúc Trăn 阮福秦, 義王 Chua Nghĩa 쭈어응이아, 1687-1691), 6. 현종(顯宗) 응우옌푹쭈(Nguyễn Phúc Chu 阮福週, 明王 Minh Vương 민브엉, 1691-1725), 7. 숙종(肅宗) 응우옌푹쭈(Nguyễn Phúc Trú 阮福澍, 寧王 Ninh Vương 닌브엉, 1725-1738). 山本達郎(1975: 703), Li (1998: 183)의 연표 참조.

진수(廣南鎮守)였다. 무왕의 아버지 때까지 7명의 지배자 중 사후에 높여 일컬어지는 직위를 보면, 1대와 2대는 없고, 3, 4, 5대가 대원수(大元帥), 6대가 도원수(都元帥), 7대는 대도통(大都統)이었다. 이들의 생시 호칭은 ‘쭈어(chúa)’로서, ‘국주(國主)’ 정도의 호칭을 줄이고 토착 언어화 말이다.

응우옌푹코앗은 숙종을 계승한 지 6년 뒤인 1744년에 왕위에 올랐다. 그리고 국왕인을 주조했다. 이전까지 사용되던 인장은 ‘총진장군인(總鎮將軍印)’이었다고 한다(『前編』, 10:6a). 이 장군인은 응우옌호앙의 직책을 반영했다. 그가 1570년 순화(順化)와 광남(廣南) 2부(府) 책임자라는 표시로 “총진장군인을 찼다(佩總鎮將軍印)”(『前編』, 1:8b)고 하는 기록에 호응한다. 진수는 한 개의 영 또는 진을 지배하는 직책명이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의 진수는 일종의 선임 진수로서 다른 진수들을 총괄하기 때문에 진수이면서도 총진장군이라 칭했던 것 같다. 무왕은 푸쭈언의 정부(正府)에서 즉위했다(『前編』, 10:8b)고 하니 이 정부의 이름도 곧 궁궐이라 부르고 규모와 규제도 왕의 그것에 걸맞게 고쳐질 것이다.

그런데 응우옌푹코앗은 왕으로 즉위할 것이냐 황제로 오를 것이냐를 두고 고심했던 것 같다. 레 황실의 존재와 자기의 선대들이 지켜온 명분을 고려하자면 황제 아래의 왕이 되는 게 맞았다. 그러나 이미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국제 관계를 의식한다면 왕이 되는 건 부족했다. 황제가 되는 게 더 적절했다. 리 왕조 이래 베트남 장기 왕조에서 황제에게 공물을 바치러 오던 번속국으로 참파, 캄보디아, 라오스가 있었다. 이중 참파는 레 왕조 때 가거나 베트남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어 명실상부한 영속적 번속국이 되었고, 캄보디아는 베트남이 주장하는 조공국이었을 뿐이었다. 16세기 말까지 홍하 델타의 권력이 캄보디아를 조공국으로 좌지우지할 능력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나라를 무왕이 통제하고 있었으니 그는 자기의

위상이 황제에 부합된다고 여길 만했다. 그러나 총진장군에서 갑자기 황제가 되기에는 무리였다. 절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되었다. “모든 문서에서는 여전히 여제(黎帝)의 연호를 쓰고 아래의 속국(下屬國)에 대해서는 천왕(天王)을 칭한다.”(『前編』, 10:7b)

무왕의 재위기에 속하는 1749-1750년 약 6개월간 베트남에 머물면서 무왕을 관찰할 기회가 있던 리용 출신의 상인 뻥브르(1719-1786)는 왕의 칭호가 천왕(vua trời)이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⁴⁾ 분명 천왕은 왕보다 높은 존재로서 ‘천자’에 가까이 간 호칭이라 하겠다. 이 ‘천왕’을 두고 동남아적 신왕(God-King, or King of Heaven) 개념의 영향이라는 견해도 있다(Li 1998: 151). 그러나 국주로부터 왕, 황제에 이르기까지 중국적 칭호를 따라가던 무왕이 갑자기 왕과 황제 사이 단계에 동남아적 신왕으로 다가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⁵⁾ 그가 관심을 갖고 있던 건 유교화 작업이었다. 국가 체제를 중국식으로 정비하고 과거를 실시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무왕의 시대에 종종 있었던 기독교 탄압도 유교 국가에서 나타나던 한 전형적 면모였다.

무왕의 왕 행세, 더 나아가 황제 될 준비는 갑자기 나타난 그 시대의 돌발적 현상이 아니었다. 썬남에 따르면, 무왕의 조부인 현종 즉 명왕 응우옌푹쭈는 이미 독자적인 신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고 한다(Son Nam 1997:18). 이는 명왕이 1702년에 광동으로 사절을 보내

4) Pierre Poivre, trans. by Kristine Alilunas-Rodgers, “Description of Cochinchina, 1749-1750,” Li and Reid(1993: 68).

5) 천왕이라는 호칭은 『史記』 중 ‘남월 열전’에서 남월의 황제 조타(趙佗)가 한나라의 문제(文帝)를 지칭할 때 나온다. 자기는 한나라의 신하로 자처하고 한의 황제는 천자라고 부르던 조타가 단 한번 천왕이라는 말로 한 황제를 불렀다. 이 사례만 갖고는 천왕이 천자보다 높은 호칭인지 그 반대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단지 정황 증거로 볼 때 후자였던 것 같다. 그런데 ‘주본기(周本紀)’에 이미 천왕이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다. 주나라가 쇠퇴해갈 때 패자가 된 진나라의 문공이 당시 주나라 왕이었던 양왕(襄王)을 천왕이라고 불렀음이 직접 화법으로 나온다. 이때 천왕은 천자보다 격이 낮은 단어였음이 분명하다.

청봉하게 한 사실(『前編』, 7:20b)을 두고 하는 말이다. 명왕은 즉위 2년 후인 1693년에 국주(國主)라는 직위를 만들어 그 호칭을 사용한 바 있다.⁶⁾ 이 청봉에서 어떤 직책을 요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때 사절이란 것도 한 중국 고승을 따라 베트남을 방문했던 두 명의 중국인이 귀국하는 길에 그것도 광둥으로 가던 삼의 상선을 타고 갔던 경우였기 때문에 청봉 사절로서의 자격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왕이 중국과의 독자적 외교 관계를 수립하려 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게다가 명왕은 진랍을 속국으로 삼아 왕으로 봉하는 위치에 있었고(『前編』, 8:22a), 1694년 참과 왕을 번왕(藩王)으로 삼아(『前編』, 7:9b) 세공을 받고 있었다. 무왕이 왕위에 오르고 황제 즉위까지 생각한 건 응우옌 왕가로 보자면 꽤 순차적인 사고전개의 귀결이었다고 할 것이다.

수많은 제도 개편이 1750년대에 이루어졌다. 왕이 머무는 곳을 부(府)에서 전(殿)으로 하고 신하들의 보고문 신(申)을 주(奏)로 바꾸었으며 6부도 두어져 기존의 기록(記錄)을 이부(吏部), 아위(衙尉)는 예부, 도지(都知)는 형부, 해부(該部)의 부단사(副斷事)는 호부로 하고 병부와 공부를 새로 설치했다. 문직(文職)을 고쳐 한림원이라 불렀다. 왕이 있는 정영(正營)을 도성(都城)이라 칭했고, 지방은 12개의 영으로 나누어 진수를 두고 해부와 기록에게 실질적 업무를 맡겼다. 쩡아이(Quảng Ngãi 廣義)와 궤년(Qui Nhân 歸仁)은 부(府)로 삼아 쩡남(Quảng Nam 廣南) 영에 예속시키고 따로 순무(巡撫)를 두어 필요시 파견해 관리하게 했으며 하띠엔은 진으로 삼아 지배자 막구에게 도독 칭호를 내렸다(『前編』, 10:11b-12a). 1698년에 설치했던 가정부는 이때 폐지되고 남베트남은 진변영, 번진영, 용호영, 하띠엔 진으

6) 『前編』, 7:5a. 그는 1709년 음력 12월에 인장을 주조했는데 거기에 새겨진 직함은 ‘大越國阮主永鎮之寶’였다. 이만 갖고 보자면 그가 완전 독립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로 구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응우옌호앙의 아버지인 응우옌킴(Nguyễn Kim 阮淦) 이래 8명의 선대 지배자에게 왕호가 추증되었다(『前編』, 10:8a-10b). 종묘가 건립되었고 왕족들의 칭호도 마련되었다. 왕의 아들은 공자(公子)라 부른다고 했다. 이는 왕자보다 격이 낮은 호칭이지만 장자는 태공자(太公子)라 했으니(『前編』, 10:12a) 황제의 후계자를 지칭하는 태자와 공자를 교묘하게 조합한 단어였다. 1740년에는 과거제도도 정비된 바 있었는데 1742년 “완거정으로 써 문직(이후 한림원)을 삼았다”(『前編』, 10:5a)는 기사에서 이 관료의 이름이 처음 나온다.

아울러 무왕에게 필요한 존재는 책봉을 받아가야 할 또는 조공을 하러 찾아와야 할 왕들이었다. 캄보디아는 여전히 조공국으로 인식되었다. 진상천이 정국왕으로 앉힌 바 있던 너엄은 무왕이 즉위하기 전인 1736년 10월에 사망했고, 그 후계자 닉타가 있었다. 그가 자기를 캄보디아의 왕으로 봉해달라고 베트남에 청했다 한다. 1737년 10월에 진랍의 조공 사절이 왔다는 기사(『前編』, 9:14b)는 이즈음의 형편을 반영한다.

훗날 응우옌 왕조가 수립된 이후 제국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수사(水舍), 화사(火舍) 두 ‘나라’가 조공을 바쳤다는 최초의 기록이 무왕 때인 1751년에 나온다. 무왕이 이해하던 수사, 화사는 “여 성종(黎聖宗, 1460-1497) 때 점성을 무찔러 이긴 후, 그 후예를 세워 남반국왕(南蟠國王)으로 삼고 [부안富安의] 석비산(石碑山) 서쪽을 경계로 삼았다”(『前編』, 10:19a)는 곳이었다. 즉 무왕은 수사, 화사를 참족의 일파로 이해하고 있었으니, 산간 오지의 부족 수장이라기보다는 ‘뼈대 있는’ 민족의 후손이 세운 ‘나라들’이

7) 『前編』, 10:19. 이보다 앞선 1711년 명왕 시절에 남반(南槃)과 차래(茶萊)가 사신을 보내 방물(方物)을 바쳤다고 하는데, ‘실록’ 집필자들은 이들의 후예가 화사국일지도 모르겠다는 의견을 적어놓고 있다(『前編』, 8:10a).

었다. 그러니 무왕으로서 볼 때 두 나라는 조공국으로서 손색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왕국이 조공하여(1761) 무왕을 기쁘게 했다. 비엔티안을 근거지로 한 만상(萬象)의 사절이 무왕을 방문했다. “[만상은] 국초부터 위덕(威德)을 두려워하고 흠모해 일찍이 사절을 보내 성의를 통했는데(通款) 이때에 이르러 공물을 바치러 왔다”(『前編』, 10:31b)고 했다. 라오스의 만상 즉 란쌍 왕국은 1700년부터 분열하기 시작해서 이즈음 세 나라가 각각 루앙프라방, 비엔티안, 참파씩을 근거지로 경쟁하고 있었다. 비엔티안의 만상은 무왕의 조부인 현종 응우옌 폭쭈의 후원에 힘입은 사이옹후에(Sai Ong Hue)가 왕위에 오른 후 베트남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꽁찌(Quảng Trị 廣治)의] 감로만민(甘露蠻民)⁸⁾과 호시(互市)로 왕래하게”만 했던 만상을 무왕 때 조공국으로 삼은 것이다. 북부의 루앙프라방 왕국은 지리적 여건상 무왕의 번속국으로 끌어들이기는 힘들었다. 베트남에 통일 왕조가 들어선 19세기에도 루앙프라방으로부터의 베트남 내공은 원활하지 않았다. 지리적 문제 외에 이 나라는 중국에의 조공국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참파씩은 친태국적이었기에 베트남과는 여간해서 내왕이 없었다.

이렇게 보면, 무왕에게 조공을 바치게 된 나라는 캄보디아, 수사, 화사, 만상으로서 19세기 응우옌 왕조가 거느릴 조공 국가군이 무왕대에 거의 확보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단지 아직 루앙프라방이 없었을 뿐이지만, 수사, 화사에 캄보디아까지 더하면 이전의 최전성기라고 여겨지던 여 성종 즉 레 타인퐁(Lê Thánh Tông) 시대의 조공 국가 수를 능가하게 되었다. 설사 루앙프라방과 비엔티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탕롱에 근거한 레 황실보다 무왕을 찾아오는 나라가

8) 꽁찌의 감로만민은 브루-번끼에우(Bru-Vân Kiêu) 족을 말한다. 이들은 베트남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고 자치를 유지했다.

더 많았다. 레 타인통 때 조공국이었던 참파는 이미 사라졌지만 참파의 후예로 수사, 화사가 있었고(적어도 무왕이 이해하는 바로는) 캄보디아로부터의 정기적 조공이 확보되었다. 여기에 더해 판랑 즉 판두랑가의 참파가 왕국으로서 1830년대까지 존속하고 있었다는 주장(=Li 1998: 16) 받아들인다면 무왕이 건설한 ‘제국’의 권위는 더 화려했다.⁹⁾ 무왕이 지배하던 베트남의 조공국으로서 뻑브르의 눈에 확실히 포착되던 나라만 해도 캄보디아, 참파, 라오스였다(Poivre 1993: 69). 무왕 이전 명왕 때이기는 했지만 팡찌에 가까운 한 라오 왕국 ‘애뢰(哀牢)’가 1715년에 조공을 바쳤다는 기사도 있다.¹⁰⁾ 『前編』에서는 비엔티안을 중심으로 하는 만상(萬象)이 애뢰와 룡환(六丸) 중간에 있다고 했다(『前編』, 10:31b). 룡환은 사서에 락환(樂丸)이라고도 표현되는 곳이다. 이 ‘나라’는 현재 라오스의 사바나켓에서 볼 때 메콩 건너편에 있는 나콘 파놈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한다(Tran Van Quy 2002: 244). 무왕에게 애뢰뿐만 아니라 룡환 또는 락환까지도 조공국으로 인식되었는 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황제국의 면모를 갖춘 무왕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전통의 베트남 황제는 중국에게서 베트남의 지배자로 인정받고 안남국왕으로 책봉 받는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탕롱에 레 황실

9) 명왕 때인 1694년에 봉했다는 순성진 변왕(藩王)은 이 나라의 왕이었다(『前編』, 7:9b). 1709년에는 이 순성 변왕 계파자(繼婆子)가 방물을 바쳤다는 기사가 나온다(『前編』, 8:7b). ‘변왕’은 같은 시기 캄보디아 왕에게도 적용되던 호칭이었다(『前編』, 8:13b). 레꾸이돈은 이 나라를 순성국(順城國)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각주 21) 참조.

10) 『前編』, 8:23b-24a. ‘대남식록’ 중 라오스 관련 최초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응우옌 호앙의 아버지 응우옌킴(1476-1545)이 레조 부흥운동을 피하기 시작했을 때 “자제들을 이끌고 애뢰국으로 피하니 그 왕 사두(乍斗)가 잠주(岑州) 땅에 살게 했다”(『前編』, 1:2a)이다. 응우옌킴이 아이라오에 머물렀던 때는 1420-1430년대인 것 같은데, 이때 라오스의 중심 세력은 란쌍 왕국이며 지배자는 포티사랏 왕(1520-1547)이었다. 사두가 포티사랏이라는 증거는 없다.

이 엄존하는 한 중국이 무왕을 인정할 리 없었다. 이런 형편은 무왕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리고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현실은 황제에 다름없는데 중국으로부터는 책봉을 받고 있지 못했다.

무왕의 선택은 스스로 안남국왕을 칭하는 것이었다. 국제 관계를 고려한다면 이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런데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 학식이 높기로 이름났던 한림원의 완광전(阮光前 Nguyễn Quang Tiễn 응우옌꽁띠엔)이 1757년 음력 7월 파직되었다. 그 이유가 안남국왕 호칭 문제와 관련이 있다. 당시 중국의 민절 천총(閩浙千總) 일행이 베트남에 표류되어 오자 그들을 후대하여 복건으로 돌려보낼 때가 되었다. 이때 왕은 완광전으로 하여금 중국 측에 경과를 설명하는 서한을 작성하게 했다. 이때 왕은 자기를 안남국왕으로 부를 것을 명했다. 그러자 완광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이에 무왕이 노하여 그를 파직시켰다. 얼마 뒤 흥분이 가라앉은 후 무왕은 생각을 바꾸어 스스로를 진수(鎮守)라 칭하는 데 동의했다(『前編』, 10:29a). 이는 무왕에게 자신의 현실적 지위를 깨닫게 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이 소동은 무왕 시기에 싹트고 있던 새로운 국제 관념 혹은 왕권 의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무왕이 왕위에 오른 건 북부 쯔 씨가 이미 왕을 칭하고 있었으니 그것을 본 뜬 게 아니었다. 그보다 이 사건은 판도의 확대, 국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며,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중심을 둔 새로운 국제 질서, 더 나아가 제국 질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정회덕의 『嘉定城通志』에 의하면 관제의 혁신과 더불어 무왕은 “옷의 색깔도 바꾸고 풍속을 바꾸기를 백성과 더불어 고쳐 새롭게 했으며 종전 북하(北河, 쯔 씨 치하의 북베트남)의 비루한 습속을 타파해 찬란한 남방을 의관 문물을 갖춘 나라로 만들었다.”¹¹⁾고 한다. 아울러 새로운

복제는 한나라와 당나라로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제도를 참작했다고 했다(p. 369, ‘風俗’). 함으로써 중화의 이는 홍하 델타에 중심을 둔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단절시키고 남방에 근거한 새 나라를 만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그 남방의 제도는 진정한 ‘중화’ 문물에 기초한다는 생각이었다.

새 질서를 향한 전망은 그 질서에 더욱 어울리는 변화를 추구한다. 궁실과 제도와 조공국, 의복, 풍속에 더해 독자적인 신 판도도 무왕에게는 필요했다. 더 넓은 땅이 있어야 했다. 완거정을 앞세운 메콩 델타 경략은 이런 맥락 속에서 살펴져야 한다.

Ⅲ. 델타 경략 전야

무왕에게 충실히 조공 사절을 보내던 캄보디아 왕 닉타가 곤경에 처한 건 태국으로부터의 위협 때문이었다. 태국 군대가 닉심을 앞세우고 들어오자(1748)¹²⁾ 닉타는 사이공으로 피신했다. 무왕으로 보자면, 속국 캄보디아의 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가 군사를 보낼 명분은 충분했다. 닉타를 쫓아낸 사람들의 행동은 무왕을 더 자극할 만했다. ‘실록’에 의하면 캄보디아군은 미토까지 남하해 약탈을 자행했다고 한다(『前編』, 10:15b). 이 당시 미토는 캄보디아의 한 지방인 메썬오(스록 메썬오)였다.¹³⁾ 그러니 닉심 세력의 미토 즉 메썬오 공략은

11) 夏六月, 定官制改色服, 移風易俗, 與民更始, 革除北河從前陋習, 煥然南方, 爲衣冠文物之國矣. Trịnh Hoài Đức(1998: 207)(‘疆域’).

12) 닉심은 원래 정국왕 닉추의 아들이었지만 베트남이 지원한 닉엄(닉추의 사위)이 왕이 되는 바람에 태국으로 망명한 인물이었다.

13) 이곳이 베트남 땅이 되는 건 의외로 늦다. 1772년의 기록에 “미토 지역(美湫處)에 장둔도(長屯道)를 두었다”(『前編』, 11:17a)고 했다. ‘도(道)’는 신개척지 초기에 붙는 베트남의 행정명이다. 그러니 미토는 이 해에 비로소 베트남의 공식 행정 구역으로 편입된다고 보면 된다. 아직 ‘~처(處)’라고 지칭되면 그곳은 정식 행정 구역 외부의 이민족 거주지라고 볼 수 있다. 장둔도의 위치는 현 미토와 통안 사이 편히

캄보디아 내부 문제였다. 당시 닉심이 사망하고 그의 세 아들이 ‘다투어 섰다(爭立)’는 기사로 보아(『前編』, 10:15a) 이 왕자들 사이의 싸움 와중에 친베트남 성향의 옥야가 지배하던 미토 지역에서 일이 벌어졌던 것 같다. 베트남이 병력을 출동시키게 된 계기는 닉타가 쫓겨 온 데 더해 미토가 공격받은 일이었다. 이미 베트남은 1732년 까지 진번, 번진, 용호, 하띠엔을 연결하는 선을 완성했다. 이에 따라 그 선 이남의 곱공, 미토, 벤제, 짜빈, 속짱, 까마우의 캄보디아인은 본국과 단절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군대는 이 배후지로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베트남군의 대응은 즉각적이었다. 그곳은 베트남 땅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일종의 실험지였다. 비유하자면 간척지 제방의 배후지 즉 잔물이 민물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곳으로서 베트남 조정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던 지역이었다.

베트남군의 지휘는 사이공에 있던 조견(調遣) 완유운(阮有允 Nguyễn Hữu Doãn 응우옌후우조안)에 맡겨졌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미토로 가 캄보디아군을 패주시키고 그들이 타고 온 전선을 불태웠다고 한다. 베트남군은 프놈펜까지 진격해서 닉심의 아들들을 내쫓고 닉타를 복귀시켰다(『前編』, 10:15b). 캄보디아의 왕이 내분 때문에 사이공으로 망명하면 베트남의 대군이 그를 호위해 들어가 다시 자리에 앉히는 관행은 이때 즉 1748년에 시작되었다. 1658년에 비롯된 베트남-캄보디아 관계에서 베트남군이 캄보디아 수도로 들어가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같이 두 국가 사이의 싸움에서 베트남 군대가 캄보디아 수도까지의 진공에 성공한 결과였다. 최종적으로 1715년, 진상천의 활약으로 베트남 조정이 닉엄을 정국왕에 앉힘으로써 캄보디아에서 정국왕-이국왕 병립 또는 분쟁의 시대가 끝난

엠펙(Tân Hiệp 新協)이었다. 1779년 장둔도가 장둔영으로 바뀌고, 1781년에 진정영(鎭定營)이 되었다(Nguyễn Phúc Nghiêp 1998: 25). 이때 중심지가 현 미토로 옮겨졌는데 현 미짜인(My Chánh 美正) 춘 즉 옛 시장이 있던 곳이다. 그 뒤 19세기가 되어서 치소(治所)가 현재의 미토 중심지로 옮겨왔다.

바 있다. 그런데 왕 자리가 한 개밖에 남지 않게 되니 그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경쟁이 더 치열해졌고 경쟁의 배후에서 베트남과 태국 사이의 갈등도 고조되었다.

태국이 다시 빼든 카드는 낙원(匿原)이었다. 무왕은 낙원을 낙심의 둘째 아들로 파악하고 있었다. 태국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캄보디아 수도를 공격했다. 낙타는 다시 사이공으로 도망쳤다. 그러자 베트남군이 낙타를 앞세우고 출동할 참이었다. 그런데 낙타가 병으로 사망했다. 남긴 후사도 없었던 것 같다. 무왕으로서는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낙원이 왕이 되었다(『前編』, 10:15b). 무왕은 조공국을 잃었다. 천왕으로서의 권위도 위태로웠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1748-1750) 무왕은 남부의 역로(驛路)를 열었다. 이는 남부 경락을 준비하는 작업의 하나였던 것 같다. 이때까지 남부의 각처는 수로로 단절되었으나 이제 수로들이 연결되고 육로가 열렸다. 이를 일러 ‘천리구(千里衢)’라 했다. 각 소재의 백성들로 하여금 물 건너는 배를 운영하게 했다고 하니(『前編』, 10:16b), 천리구란 육로와 수로가 번갈아 이어지는 단선로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무왕의 군대가 사이공에서 미토로 이동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메콩을 거슬러 올라갔지만 이제 육로와 수로를 통한 내지 이동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했다.

그러던 중 무왕에게 기회가 왔다. 1750년 음력 2월 “캄보디아 낙원이 곤만을 침범했다(眞臘匿原侵崑蠻).” ‘곤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뒤따른다. “순성(順城) 추장 부락이 많이들 진랍 땅에 흘러들어가 사니 이들이 곤만이다.”(『前編』, 10:16b-17a) 무왕의 조부인 명왕 시절 참파가 순성진(順城鎭)으로 바뀐 이래(1693) 참인은 베트남 영토 내 소수민족 집단으로 간주되었고 지도자는 지방의 토사(土司) 급으로 남았다. 명목상으로는 부(府)니 진

(鎮)이니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번왕(藩王)’이라는 직책을 두어 나라처럼 인식도 하는 가운데 지배자들이 두어지지만 통일된 구획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들 중 일부가 캄보디아에 이주해 살았다는 말인데, 그들이 간 곳이 진랍의 어디쯤이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혹,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메콩 변의 껌뽕짬 및 그 주변이 아니었나 한다. 지명이 말해주듯 이곳은 현재 참족이 많이 거주한다.

중요한 건 무왕이 이들 곧만 즉 캄보디아 거주 참인을 자신의 신민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인식의 배후에는 참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한 무왕의 욕구가 도사리고 있었음이 거의 확실하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논의하도록 하겠다.

닉원의 곧만 침입을 구실로 조정에서는 캄보디아 정벌이 논의되었다. 캄보디아를 치기로 결정하자마자 태국 왕에게 보내는 서한이 작성되었다. 중국의 고사까지 동원된 이 글에는 캄보디아가 무왕의 번속국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드리워져 있다. 아울러 이 서한은 왕이 된 응우옌푹코앗이 태국 왕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였기 때문에 그의 왕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국제 관계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만하다. 이른바 ‘복수의 동등한 권력 중심과 그 각 중심이 거느리는 지배 범위들’(Wolters 1999: 27, 39; 최병욱 2011: 253, 256) 중의 하나로 자신의 왕국을 자리매김하는 조짐이었다. 서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前編』, 10:17a).

왕 된 자가 군사를 쓰는 일은 난리를 그치게 하고 포악한 자를 주멸하고자 함이다. 그래서 문왕(文王)의 불공지로(不恭之怒), 선왕(宣王)의 정거지벌(整居之伐)이 있었던 건 전쟁을 즐겨서임이 아니었다. 부득이었을 뿐이다.¹⁴⁾ 쯔그만 요 진랍(叢爾眞臘)은 나

14) 어질기로 이름났던 주나라 문왕(文王)이 은나라 주왕(紂王)의 폭정과 자기에 대한 학대를 참아내다가 급기야 반기를 들고 주왕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주나라 12대 선왕은 쇠퇴기에 일시 중흥의 업을 이룬 왕이다.

의 번복(藩服)이 되었는데, 이게 감히 흉한 도둑떼들을 불러 모아 변방을 침범하니 이 짓은 섬국(暹國)도 미워할 바이다. 이제 신하를 보내 병사를 거느리고 죄를 물을 것이니 그들은 반드시 바람을 따라 도망치고 흩어질 것이라 혹 섬국(暹國)으로 들어가면 마땅히 즉각 붙잡아서 군영으로 보내, 따르지 않는 신하가 도망쳐 칼과 도끼를 받아 죽는 일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눈에 띄이는 기사는 “쪼그만 요 진랍은 나의 번복이 되었는데”이다. 무왕은 진랍에 대한 배타적 종주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섬국 즉 태국으로 도망치면 붙잡아 베트남 군영으로 보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낙원이 태국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던 무왕의 강력한 태도는 태국과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또 한 가지 살펴 볼 것은 변방을 침범했다는 캄보디아의 죄이다. 무왕의 ‘실록’에서는 ‘곤만’이라는 종족 또는 집단을 캄보디아가 침범한 대상으로 지칭했는데 비해 무왕의 편지에서는 곤만 혹은 곤만의 소재지가 ‘변방’(원문에는 변어 邊界)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앞선 기사 “순성 추장 부락이 많이들 진랍 땅에 흘러들어가 사니 이들이 곤만이다.”라는 기사에서 곤만의 거주 위치를 ‘진랍 땅’이라 명시하고 있었던 걸 기억한다면, 이 ‘진랍 땅’이 태국 왕에 보낸 서한에서는 ‘변방’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캄보디아 땅 일부를 베트남의 변경이라고 하니 억지스러워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는 무왕의 고조부인 태종(현왕)이 용문 집단을 활용했을 때와 유사하다. 캄보디아 땅의 일부(훗날의 미토와 비엔호아)에 용문 집단이 정착했는데, 그 캄보디아 땅이 얼마 안가 베트남의 변방으로 인식되었다. 이것이 바로 무왕 및 그 선대 왕들이 외국 사람을 이용해 남의 땅을 자기 영토를 만드는 데 사용하던 논리의 요체였다.

태국에 서한을 보낸 해가 1750년이었지만 전쟁이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후로 전쟁이 일어나는 1754년까지 ‘실록’을 채우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완거정의 표문(1751), 둘째는 수사·화사의 내공(1751), 셋째는 1752년 음력 2월에 완유박(阮有鑄 Nguyễn Hữu Bạt 응우옌호우박), 진정희(陳廷憲 Trần Đình Hy 전딘히)를 흠차 순찰로 삼고 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한 것이다. 그 분량은 열 줄로서 민정에 관해서였다(『前編』, 10:19). 다음에 단 한 줄로 나오는 기사가 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다. “이 해에 흉년이 들었다. 쌀 1방(方)이 전(錢) 3만(緡) 여가 되었으니 백성들 중 굶어죽는 자가 많았다.”(『前編』, 10:20) 그 다음으로 완거정이 포정영(布政營) 기록에 임명(1753. 3) 되었다는 기사가 있다. 같은 해인 1753년에는 재정 수입과 지출 장부를 만들었다고 했으며(『前編』, 10:20b-21a), 그 해 음력 11월 무왕은 완거정을 남부 경략 참모로 삼았다(『前編』, 10:21b). 1754년 3월에는 도성을 왕도에 걸맞게 꾸미는 대역사가 시작되었다. 전각이 화려하게 세워졌고 왕실 정원이 꾸며졌다. 그리고 “도성의 상하에는 병영과 여러 공후(公侯)의 거처가 우물정(井) 모양으로 늘어서고 바둑판처럼 벌여 섰으며 성 바깥에 점포의 이어짐이 나무가 우거진 듯했고 고기 잡는 배, 장사하는 배의 오고감이 천 울처럼 촘촘하여 큰 도시를 이루었으니 문물의 번성함이 이전에 없던 바라”(『前編』, 10:22)는 말이 나온다.

이렇다면 1750-1754년 사이에 보이는 대표적인 사건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캄보디아의 곤만 침입(1750), 2. 태국에 서한 발송(1750), 3. 완거정의 건의서(1751), 4. 수사·화사의 내공(1751), 5. 기근(1752), 6. 완거정을 포정영에 파견(1753. 3), 7. 완거정을 참모로 삼음(1753. 11), 8. 도성 건설(1754). 이 중에서 1, 2, 4, 7은 전쟁과 외교 관련 기사로서 본고의 서술에서 보이는 표면적 현상들이다. 그런데 3, 5, 8의 기사는 위세 있어 보이는 무왕 왕국의 겉모습과는 달라 보이는 심각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문제가 되는 3, 5와 8의 내용은 상호 모순의 정도가 극단적이다.

3번에서 언급된 완거정의 건의서는 그가 팡아이에 순무로 임명된 후 전권을 위임 받아 현지를 조사하고 다스린 후 그곳에서 발견한 적폐를 낱낱이 열거한 보고문이다. 테일러에 따르면 이곳은 왕도에 가까운 팡남의 배후지로서 당시 거주민들은 조정에 대해 적대적인 감정을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조정이 통제하지 못하는 산지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100킬로미터에 이르는 해안 지대는 동서 평균 폭 10-15km로 좁은 땅에서의 생산력 또한 낮았다. 여기에 관리들은 부패했고 도적떼들이 창궐하고 있었다(Taylor 2013: 333). 이미 문제는 중앙 조정, 구체적으로는 무왕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1747년에 그는 아연전을 주조하게 하여 물가를 앙등시킨 바 있다. 뽀브르는 중국 상인에 의한 아연(tutmeg)¹⁵⁾ 수입, 아연전 주조의 경과와 메카니즘 및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뽀브르에 의하면 사람들은 돈과 귀중품을 땅에 묻고 관리들의 착취를 피하기 위해 가난하게 보이려 애쓰고 있는 형편이었다(Poivre 1993: 88). 팡아이의 문제는 이런 경제 불안의 결과였다. 위에 열거한 사건 중 제 5번에 나오는 1752년의 기근 역시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민심을 동요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화려한 궁궐을 지어가며 왕의 권위를 고양하는 노력은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무왕이 메콩 델타로 진출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리타나는 경제적 고려를 들고 있다고 했다. 무왕 시기 대외 교역이 현저하게 쇠퇴했다는 것이다. 무왕 조정으로서는 줄어든 수입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던 데다가 구리 부족¹⁶⁾으로 아연전을 주조하자 인플레이가 발생했고, 다시 또 인플레이는 대외교역을 위축시켰으며 여기에 왕도 건

15) 베트남 사료에는 이것이 ‘서양백연(西洋白鉛)’이라고 표현되었음(『前編』, 10:13a).

16) 구리가 부족한 1차적 이유는 민간에서 동전을 녹여 그릇을 만드는 일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진단됨(ibid.). 이런 문제는 이미 1725년 기사에서 나타난 바 있다. 남국 초기에 만들어진 태평전(太平錢)과 청나라 강희전(康熙錢)이 함께 통용되었는데 이 동전들이 훼손되기 시작한 것이다(『前編』, 9:2a).

설 공정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다는 해석이다. 그동안 늘어난 인구를 먹이기 위해 메콩의 ‘캄보디아 쌀’도 필요했음이 강조된다(Li 1998: 83-98). 진랍 공격이 늦어진 건 악화된 재정 상태 때문이었겠지만, 진랍을 공격을 단행한 이유는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함이기도 했던 것 같다. 전쟁은 단기간에 끝내고 소득은 높아야 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고려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은 제국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영토 확장이었다. 푸쑤언을 중심으로 한 당시의 응우옌 씨 판도는 응애안으로부터 메콩 델타 동편에 이르는 좁은 선에 가까웠다. 중국은 물론이려니와 넓은 홍하델타 위에 앉은 북부 쩐 씨의 판도에 비해 무왕의 땅은 훨씬 왜소했으며 동격의 ‘왕’으로 상대하고자 했던 태국과도 비교가 되지 않았을 정도로 작았다. 심지어는 캄보디아보다도 무왕의 판도가 오히려 작았다. 왕국의 체모, 조공국을 거느린 잠재적 제국에 걸맞게 영토는 더 넓어져야 했다. 광활한 메콩 델타가 편입된다면 나라의 크기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확대될 수 있었다. 완거정이 남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때가 이 즈음이었다.

IV. 신 판도의 완성

진랍 공격의 명이 내려진 건 1753년 음력 11월이었다(『前編』, 10:21b). 무왕은 해대(該隊) 선정(善政)¹⁷⁾을 통솔(統率)로 삼고 기록

17) 『前編』에는 선정이 성씨가 밝혀지지 않은 이름이라고 나오지만 『嘉定城通志』에는 그를 선정후(善政侯)라 칭하고 있다.(p. 207) 당시 이 선정후의 직책이 30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해대였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대는 임명될 때의 직책이 아니라 최후의 직책이다. 그가 훗날 메콩 델타에서 군사 작전에 실패한 책임을 지고 해대로 강등당한 후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직책이 이름 앞에 붙게 된 것이다.

완거정을 참모로 삼았다. 그리고 평강(平康), 평순(平順), 진변, 번진, 용호 등 5명의 병사를 동원해 진랍을 정벌하게 했다. 선정은 사이공 강변에 영채를 세웠다. 이후 1754년 음력 6월에 캄보디아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때 선정은 미토로부터 진격했고 완거정은 밤꼬동(Vàm Cỏ Đông)으로 추정되는 강을 따라 올라갔다. 미토는 1748년 캄보디아 군대에게 공격을 받았던 곳이다. 선정의 주력군은 사이공에서 이곳으로 이동해 주둔하고 있다가 북상했다. 선정과 완거정의 군대는 메콩에서 합류해 프놈펜 근처의 로엄(盧淹)에 둔을 쳤다. “뢰렵(雷獵), 심분(尋奔), 구남(求南), 남영(南榮) 등 4개 부 모두 항복했고” 낙원이 로백으로 도주하자 완거정은 “휘하 장수들을 나누어 보내 곤만을 초무하여 기세를 떨쳤다”(『前編』, 10:24a)고 한다. 이 중 뢰렵 즉 로이랍은 현 고폡(Gò Công)을 가리킨다. 사이공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미토로 들어오는 길목이다. 이 때문에 종종 고폡과 미토가 1750년대에 베트남 영토로 편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남영 즉 프놈펜이 이때 항복했다고 해서 베트남 땅이 되는 게 아니었듯 항복 그 자체가 납지(納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군사적 승부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심분 즉 텡본(Tâm Bôn 尋奔)은 현 사이공 서쪽 롱안(Long An)과 동탑(Đồng Tháp)을 포괄하는 지역이다. 현재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듬해 1월 선정은 병사를 이끌고 먼저 미토 둔영으로 복귀했으며, 곤만으로 하여금 가금(哥禽)¹⁸⁾을 버리고 평청(平淸)¹⁹⁾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이들의 행렬이 무사은(無斜恩)²⁰⁾에 이르렀을 때

18) 웨버는 이곳을 카캄(Kha Kham)이라고 했는데 현재의 어느 곳인 지는 아직 비정되지 않았다. 단지 현 떠이닌 지역 혹은 그 부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러 논의에 대해서는 Weber(2011: 747) 참조.

19) 이곳 역시 떠이닌 혹은 그 주변 지역이다. 그러나 명확한 비정은 불가능함. 이에 대한 논의도 앞의 글 같은 쪽 참조.

20) 비정이 불가능하나 역시 현 떠이닌 지역이 아닐까 한다.

캄보디아 병사 만여 명이 따라와 그들을 공격했다. 참인들이 “수레를 엮어 보루로 삼아 저항하고 지키면서” 구조를 요청하자 완거정이 출동해 남녀 오천여 명을 구해 왔다는 게 ‘실록’이 전하는 시말이다(『前編』, 10:25).

사람의 숫자를 ‘남녀 ~’라 표현하는 건 이례적이다. 군사 집단이 아닌 난민 집단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겠다. 전쟁이나 이동 중 소모된 숫자를 고려한다면 남녀 오천이 넘는 참 인구가 캄보디아에서 집단을 이루며 살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정회덕의 기술에 의하면, 가금을 버리고 평청으로 향했던 참인의 수는 원래 ‘정예로운 장정 만여 명(精壯萬餘)’이었다고 한다(Trình Hoài Đức 1998: 209). 레꾸이돈은 심지어 완거정이 ‘거둔 순성국 곧만이 3만 명’이라고 적고 있다.²¹⁾ 17세기에 베트남으로 건너온 명나라 유민의 숫자가 남녀 합해서 삼천 명이라고 했다. 이 인력을 캄보디아 땅에 이주시켜 그로부터 약 70여년이 지난 시점인 무왕 때 메콩 델타를 거의 차지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많은 오천여 명, 혹은 만 명, 혹은 3만 명이 넘는 인구로써, 더군다나 명나라 유민보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익숙한 참인으로써 무왕이 얼마나 넓은 땅을 더 차지할 수 있었을지 모를 일이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자원이 캄보디아군의 공격을 받아 소멸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완거정은 이들을 데리고 돌아와 파정산(婆丁山)²²⁾ 아래 진영을 정비하게 했다. 무왕은 장복유(張福猷, Trương Phúc Du)로 하여금 이 참인들을 길잡이로 삼아 구남과 남영을 공격하게 했다(『前編』, 10:25b). 이는 무왕의 선대들이 명 유민을 이용해 캄보디아와의 전쟁에 앞세운 방식과 유사하다. 닉원은 하띠엔으로 피신했다. 여기서 그는 막천 석에 중재를 요청했다. 캄보디아가 로이랍(고꽁)과 락본을 베트남에

21) 收順城國崑蠻三萬衆降服. Lê Quý Đôn(1972 卷5: 143-144).

22) 누이바덴(Núi Bà Đen). 떠이닌 소재.

할양하고 충실한 조공국이 되기로 했다. 이때가 1756년이다. 그렇다면 전쟁은 1754년 음력 6월에 개시되어 1년 사이에 승패가 결정된 것이다.

완거정은 무왕에게 캄보디아가 할양하겠다고 한 고쑹과 땀본 중 땀본 지역에 참인을 이주시키자고 제안했다(『前編』, 10:25b). 웨버는 참인을 이용한 베트남인의 영토 확장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생산한 바 있다. 그는 19세기 응우옌 왕조 시기 조정에서 참인의 거주지를 자의적으로 마련한 기원을 이 1750년대 사건으로 들고 있다(Weber 2011: 747). 그러나 왜 그때부터인지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이는 메콩 델타 및 캄보디아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 캄보디아로의 영토 확장 과정에서 캄보디아 왕의 지배권 안에 있던 참족을 베트남의 신민으로 빼내는 데서 생기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17세기부터 시작된 영토 확장에서는 캄보디아 영역 안에 집어넣은, 혹은 거기에 거주하던 중국인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양국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지만 이제 무왕 대에 이르러 베트남의 영토 확대 범위가 메콩 델타의 북쪽으로 향하면서 캄보디아 안에 있던 참인이 양국 분쟁에 노출되었고 베트남은 캄보디아와의 싸움에 이들을 활용한 것이다. 이에 더 나가 무왕은 그들을 신평입지에 살게 해 베트남 영토 확장의 전위로 삼았다.

이 전쟁으로 무왕이 획득하고자 했던 곳은 참인이 살고 있던 껌뽕 째이나 스바이리엥 등 떠이닌에 연속되는 메콩 강 동쪽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캄보디아 왕이 심분과 퇴럽만을 할양하겠다고 했을 때 무왕은 이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미 베트남-참 군대가 프놈펜까지 진격했다면 국경선을 북쪽으로 확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더 길어져야 했는데, 무왕 조정의 재정 역량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상황은 아니었다.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완거정은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려 무왕을 달랬다. 이 글에 잠식지계와 이만공만의 방략이 등장했다. 이 상주문이 시작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전쟁의 이유가 직설적이다(『前編』, 10:27b-28a).

예로부터 군대를 사용하는 일은 우두머리를 죽이고 강토를 열기를 바랄뿐입니다.

이는 무왕이 태국 왕에게 보낸 서신에서 한 말과 크게 다르다. 거기에서 무왕은 “군대를 사용하는 건 어지러움을 완화하고 포악함을 징벌하는 데 있다”고 했다. 완거정의 글에서는 땅을 넓히는 게 강조되고 있다. 무왕도 마찬가지로 생각이었을 것이다. 단지 완거정은 일단 캄보디아 왕이 넘겨주겠다는 2개 지역의 땅으로만 만족하지는 의견이었다. 이것이 잠식지계로 표현된다(『前編』, 10:28a).

지금 닉원이 잘못을 뉘우쳐 땅을 바치고 장부를 바치고자(獻款) 하는데 만약 그들의 거짓됨을 궁구한다면 그들은 장차 도망가 구멍으로 숨을 것인즉 가정의 둔영으로부터 로벡에 이르기까지의 길은 매우 멀고 수풀과 산림이 우거져 끝까지 쫓아가기가 힘듭니다. 강토를 열고 개척하려 한다면 마땅히 이 두 개 부(府, 캄보디아의 스탁)를 취함으로써 두 영[번진영, 용호영]의 배후를 굳게 해야 하거늘 만약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도모한다면 형세가 멀고 병졸과 백성이 서로 가깝지 않음이 두렵습니다. 얻는 건 비록 쉬우나 이를 지키는 건 실로 어렵습니다. 옛날 가정부(嘉定府)를 개척할 때 먼저 흥복(興福)을 열고 그 다음에 녹야(鹿野, 동나이를 이룸)를 열어 병졸과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한데 모이게 하고 그 후에 사이공을 개척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누에가 뽕을 먹는 계책(蠶食之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먼 것을 도모한다’는 건 무왕이 원했던 정도의 양을 암시한다. 즉 껌뽕짬, 스바이리엥을 포괄하는 메콩 이동 지역이 바로 그 ‘먼 것’이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아울러 완거정은 무왕에게 두 개의 만(蠻)이 존재함을 상기시켰다. 한 개의 만은 캄보디아요, 또 하나의 만은 참인 즉 곤만이였다. 이 곤만을 유심히 관찰할 기회가 있던 완거정은 이들이 육상에서의 전투에 능함을 지적하면서 물이 많은 델타보다는 과정산으로부터 펼쳐진 육로상에 참인을 배치하여 캄보디아 군대와와의 싸움 전면에 서게 하자고 했다(『前編』, 10:28).

옛날 땅은 흥복으로부터 사이공에 이르기까지 겨우 2일 거리이며 지금 거주민은 아직 편히 모이지 않았고 지키는 군대도 아직 두루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사이공으로부터 땀본까지는 6일 여정이며 지세는 광막하며 백성의 수는 만 명에 이르는데 정규군이 주둔해 방어하지만 부족할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신이 보건대 곤만은 육상전에 능하고 진랍은 이미 마음이 섹퍽하니 이 땅에 [곤만을] 살게 하여 제어하게 하면 만이로써 만이를 치는(以蠻攻蠻) 일이니 뜻을 얻는 계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곤만의 병력을 사용해 보기도 전에 뜻밖의 일이 생겼다. 1757년 낙원이 사망한 것이다. 그의 아저씨뻘인 낙윤(匿潤)이 정권을 잡았다. 무왕은 이 인물을 왕으로 인정해 주는 대가로 짜빈과 속짱을 차지하려 했다. 이미 고히를 할양받았으나 메콩을 가로질러 바닷가에 먼한 곳으로 벤째, 짜빈, 속짱이 여전히 캄보디아 땅이었다. 무왕은 그 중 짜빈과 속짱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내부 분쟁으로 낙윤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낙존(匿尊)이 하띠엔으로 도망갔다가 무왕의 도움으로 왕위에 올랐다. 이 와중에 짜빈과 속짱 할양 문제는 흐지부지 되었다

대신에 낙존이 무왕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내어 놓은 땅이 땀풍롱(Tâm Phong Long 尋楓龍)이었다. 곧 무왕은 땀풍롱 등 새로

편입된 땅을 베트남식 행정체제로 구획해서 세 개의 도(道)를 설치했다. 사이공으로부터 6일 거리라는 땀본은 룡안으로부터 동탑머이에 이르는 곳으로 현재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이라고 앞서 말했다. 닉존이 할양한 땀풍롱이 메콩 델타의 어디쯤이 있는지는 정확한 비정이 쉽지 않다. 단지 다음의 기사로 가늠해볼 뿐이다. “사적처(沙的處)에는 동구도(東口道)가, 전강(前江)에는 신주도(新州道)가, 후강(後江)에는 주독도(朱篤道)가 두어졌다.”(『前編』, 10:30a) 동구도는 메콩 전강과 후강 사이로서 빈롱 이북 지역(현 짜텍 부근), 신주도는 짜텍 이북의 현 땀쩌우(Tân Châu 新州)로서 안장성에 속하는 곳, 그리고 주독도는 메콩 후강 서안으로서 속짱 이북으로부터 찌우독까지의 땅이다. 이곳은 현 안장 성에 있다. 그러니 땀풍롱은 사이공-하띠엔을 연결하는 브이 자 형 긴 띠 중 메콩 전강이서 현 캄보디아와 맞닿은 모든 지역이 된다. 여기에 땀본까지 보태면 사이공으로부터 안장 성의 찌우독에 이르기까지 현 베트남-캄보디아 국경까지 이르는 땅이 모두 베트남으로 넘어온 것이다.

만약 무왕이 원했던 대로 곧만이 살던 메콩 전강 동쪽의 땅까지를 다 차지했다면 현재의 껌뽕짬, 스바이리엥, 프레이벵 등 캄보디아 3개 주까지 베트남 땅으로 들어와 사이공 이북의 베트남-캄보디아 자연 경계는 메콩 전강으로 고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남쪽 바다에 면한 짜빈과 속짱은 관할권의 변화가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채 본국과는 두텁게 중첩된 ‘베트남 땅’을 사이에 두고 격리되었다.

하띠엔에서 까마우에 이르기까지의 지역이 남아 있었는데 이도 얼마 안가 베트남 땅으로 편입되었다. 닉존이 막천석에게 감사의 표시로 향오(香澳 Hương Úc 호영옥), 근발(芹渤 Càn Bột 견북), 진삼(眞森 Chân Sâm 전썸), 시말(柴末 Sài Mạt 사이맛), 령경(靈瓊 Linh Quỳnh 린꾸인) 등 5개 스톱을 양도했다. 막천석은 이 땅을 무왕에게 헌납했다. 이 다섯 개의 스톱 중 하띠엔 이북의 시말과 근발 즉 사이맛²³⁾과 껌뽕은 19세

기 중반에 캄보디아에 반납되었으며 향오, 진삼, 령경은 하띠엔 이남에 소재했다. 이 세 개의 스록을 두 개로 나누어 무왕은 견강도(堅江道, 현 끼엔장 Kiên Giang)와 용천도(龍川道, 현 까마우 Cà Mau)를 삼았다.

이렇게 하여 무왕 때 메콩 델타에는 다섯 개의 도가 새로 생겨났다. 동구도, 신주도, 주독도는 용호영 관할이며 견강도와 용천도는 하띠엔 진에 속했다. 1754년부터 시작된 전쟁은 1년 사이에 끝났지만 캄보디아 내부의 권력 투쟁 과정에 편승한 무왕과 막천석의 협조 속에서 그리고 완거정의 활약으로 사이공부터 하띠엔을 연결하는 선 이남의 지역 뿐 아니라(짜빈, 속짱 등 몇 개 지역은 예외) 그 바깥 쪽으로 현재의 국경선에까지 이르는 지역이 대부분 베트남 땅으로 편입되는 게 1757년이였다. 이는 전쟁 개시부터 시작해서 단 3년 동안 생긴 변화였다. 그런데 ‘잠식’이라는 의미가 차근차근 갉아먹는 외에도 ‘몽땅 깨끗이 먹어치운다’이기도 하다는 걸 기억한다면 ‘누에가 뽕잎을 먹듯’ 한다는 말이 의미하는 두 가지 방식이 무왕의 강토 확장에 다 구현된 셈이다. 베트남은 메콩 델타의 캄보디아 땅을 차근차근, 그리고 몽땅 먹어치웠다는 것이다. 캄보디아를 치기 위해서 참인을 이용한 건 이만공만의 실현이였다. 그런데 하띠엔을 비롯해 그 주변 다섯 개의 캄보디아 스록을 갖게 된 것도 막씨 및 그 추종자 즉 근원이 불분명한 외래 중국인 덕분이였다. 물론 아직 짜빈, 속짱의 베트남 귀속 여부는 논란거리로 남겨 두었지만 현 남부베트남을 구성하는 땅 대부분은 이때 베트남 영토로 편입되였다.

여기에 더해 낙존을 번국 왕으로 앉힘으로서 영토 획득과 조공국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무왕은 다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애초 의도만큼 확대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지만 자기 마음속의 제국에 걸맞은

23) 이곳은 중국을 떠난 막구가 무리를 이끌고 최초로 정착한 곳이었다. 막구는 여러 나라의 상선들이 몰려들었다는 이곳에 도박장을 건설해 돈을 벌었다(『前編』, 8:4). 사이맛은 하띠엔과 캄푹 사이에 위치한 스록이었던 것 같다. 하띠엔은 원 사이맛에 속했던 지역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영토를 마련한 위에 무왕은 캄보디아, 참, 수사, 화사, 비엔티안, 루앙 프라방을 거느린 새 세계를 탄생시켰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베트남이 남쪽으로 줄곧 영토를 확장했다는 ‘남진’의 패러다임은 현 베트남의 영역을 남진의 성공적인 종착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17, 18세기 동안 ‘하부캄보디아’가 베트남 영토로 편입되었는데 이 변화는 무왕 때 이르러 거의 완성되었으며, 이를 마지막으로 응우옌씨 정권은 곧 파탄을 맞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파탄은 남진의 완성 대가로도 이해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무왕 시기 영토 확장의 대상 범주가 현재의 영토 한계보다 훨씬 더 북쪽까지 미쳤음을 살펴보았다. 현 떠이닌 보다 위쪽에 있는 메콩 동편 연안 지역까지 확대 대상에 포함되었다. 여기에는 참인의 거주지가 있었으며 이 참인에 대한 통제권이 무왕 시기 영토 팽창을 위한 전쟁의 발미가 되었다.

본문에서 필자는 무왕 시기 하부 캄보디아로의 영토 팽창을 국제 질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참인에 대한 통제권 문제도 무왕이 구축하려 했던 국제 질서와 관련이 있었다고 여겼다.

본문 첫 장에서는 응우옌씨 정권이 출현한 지 약 200년이 되어가는 즈음에 처음으로 왕을 칭하기 시작한 변화가 고찰되었다. 왕을 칭했다는 건 독립된 왕국의 성립을 의미했다. 비록 연호는 탕롱의 데 황실 것을 계속 사용했으나 조선의 국왕이 중국 황제의 연호를 사용하듯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독립 왕국의 위상을 방해할 이유는 없었다. 정식으로 도성이 건설되었고 왕국의 면모에 걸맞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런데 무왕의 왕국이 조선 왕국과 다른

건 여러 조공국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조공국의 숫자는 탕롱의 황제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베트남에서 최전성기라 일컬어지던 레 타인퐁 시절의 조공국 숫자를 능가했다. 조공국만 놓고 보자면 그 숫자나 범주가 19세기에 출현하게 되는 응우옌 왕조의 면모와 유사했다. 무왕은 황제가 될 것을 생각했던 것 같고 절충적 대안으로 자신을 천왕이라고 칭했다.

다음 장 내용은 메콩 델타 경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이던 여러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성격은 무왕이 태국의 국왕에게 보내는 서한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태국 왕은 무왕의 세력 범위 넘어 또 다른 중심부였다. 이는 세계를 여러 개의 세력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반영이다. 태국과 대등하기 위해서도 나라의 덩치는 더 불어날 필요가 있었다. 메콩 델타로의 영토 확대 기도는 제국의 위신과도 상관이 있었다. 태국에 보낸 서한에서 무왕은 캄보디아에의 배타적 지배권을 천명했으며 캄보디아 내 참인을 자기의 신속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 신속은 조공국 개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영토 내에 살고 있는 구성원에 가깝다. 무왕의 판도 내 순성진의 참인과 캄보디아 판도내 곤만은 다 같은 참인으로서는 캄보디아 내 참인을 통해 무왕의 영토 공간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동서고금 어느 제국에서도 보이듯 조공국의 확보와 영토 확장은 제국 정책의 두 개 축이었다.

무왕의 불만 또는 아쉬움에 대한 위로의 서한이 완거정의 상소문 이었고 이 안에는 왕과 신하가 공유하게 되는 무왕 기 조정의 기본적인 방략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영토 확장이 무왕에게 얼마나 큰 관심사였는가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 영토 확장에는 누에와 야만인의 속성을 활용한다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보았다. 누에가 뽕잎을 먹듯 차근차근 캄보디아의 영토를 취해나가기만 그 수고로움은 우선 ‘야만인’에게 전가되었다. 그

‘야만인’은 그 이후 줄곧 존속할, 혹은 중심의 울타리가 될 존재가 아니라 사라지거나 동화될 대상이었다. 참인이 그러했고 중국인이 그러했다. 누에는 뽕잎을 야금야금 갉아먹는다. 그런데 완거정이나 무왕의 마음속에 이미 자리한 영역의 범주가 있었다면, 잠식지계는 ‘갉아먹는’ 일인 동시에 ‘뭉땅 먹어치우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무왕의 매콩 델타 획득은 그의 사후 국가 운영이 파탄나고 떠이썬의 반란이 발생함으로써 부정적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제국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훨씬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떠이썬 반란의 발발로부터 자단-떠이썬 내전 기까지 약 30년을 건너내고 무왕의 정책과 자롱-민망 시기를 직접 연결해 본다면 잠식지계와 이만공만이야말로 베트남 역사 초유의 거대 제국 건설에서 핵심적이고 연속적인 두 수단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자롱은 떠이썬을 이기고 북부를 점령해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만인’(크메르인, 참인, 라오인, 중국인, 유럽인, 산지민 등)²⁴⁾을 동원함으로써 ‘이만공만’의 묘를 발휘했다. 흔히 서적(西賊)이라 불렸듯 응우옌푹아인 측에게 떠이썬이 도적떼였다면 만인으로 도적을 친 것이니 이는 이만공만의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게다가 많은 ‘야만인’이 실제 떠이썬 군의 구성 요소였다. 떠이썬 군 안에는 중국인 및 중국 해적도 많았으며, 참인과 산지민들도 있었다. 떠이썬의 발원지가 빈딘 성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길목 산지민이 많이 사는 고원지대 안케(An Khê 安溪)였던 데다가 떠이썬 3형제 중 맏형인 응우옌반낙(Nguyễn Văn Nhạc 阮文岳)이 바나 족 여성을 아내로 맞아 들였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 혼인은 떠이썬과 ‘야만인’의

24) 크메르인, 참인, 라오인은 베트남 입장에서 문명화의 대상이 되는 당연한 만인이었다. 붉은 털투성이라는 의미로서 ‘홍모’라 불리던 유럽인을 비위만 틀리면 서양 만인이라 인식하던 건 중화적 전통이고 본국을 떠나 베트남에 와서 살고 있던 이주 중국인은 중화의 신민이라기 보다는 베트남으로 흘러들어온 유우민(流寓民)이라는 데서 베트남화를 기다리고 있는 만인이었다. 베트남 소재 중국인을 만인으로 인식하는 논리에 대해서는 최병욱(2014: 78-79) 참조.

결합을 상징했다.²⁵⁾ ‘잠식지계’는 민망 시기 메콩 델타를 넘어 캄보디아 전 영토를 합병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차근차근 값는 단계를 지나 결국 캄보디아 땅을 다 먹어치운 것이다. 두 사업의 근원이자 근거지는 모두 무왕 시기 두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험되던 메콩 델타 즉 ‘하부캄보디아’였다.

이에 더해 무왕 기에 정립된 세계는 19세기 통일왕조 특히 민망 시기에 완성된 제국 질서의 원형이었다고 평가하기에 족하다. 비록 황제를 칭하는 일은 모색 단계였으나 조공-책봉 관계를 매개로 하는 국제 관계는 그 틀을 이루어나가기 시작했고 중화적 질서의 근간이 되는 영토 확장도 적극적이었다. 하나의 중심축을 유일한 세계 중심으로 여기는 중국적 세계관이 아닌 19세기 응우옌 왕조 시기의 다중심적 국제 질서의 확립 역시 무왕 때에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보았다. 무왕 기 메콩 델타 즉 ‘하부캄보디아’로의 영토 확장은 민망 시기 프놈펜을 포함하는 ‘중부캄보디아’를 합병하는 모습 및 그 전후의 제국 질서와 상당히 유사했다. 응우옌 왕조가 완성한 19세기 제국의 원형을 북부 혹은 북부에 근거한 10세기 이래의 대월(大越) 보다는 18세기 중반 무왕 치세의 남부베트남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

〈참고문헌〉

최병욱. 2011. “19세기 전반 베트남 제국(帝國)의 국제질서.” 『동남아시아연구』 21(1).

_____. 2014. “베트남의 ‘남부캄보디아’ 획득 과정에서 보이는 명 이주민의 역할: ‘용문장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1679-1732.”

25) 띠이썬과 소수민족의 협조 관계에 대해서는 Dutton(2006: 90-93) 참조.

『동남아시아연구』 24(3).

『大南寔錄前編』 1961(1844). 東京: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大南列傳前編』 1961(1844). 東京: 慶應義塾大學語學研究所.

司馬遷. 2010. 『史記』. 北京: 中華書局.

山本達郎 (編). 1975. 『ベトナム中國關係史』. 東京: 山川出版社.

Dutton, George. 2006. *The Tây Sơn Uprising, Society and Rebellion in Eighteenth-Century Vietnam*. University of Hawaii Press.

Lê Quý Đôn (trans. Lê Xuân Giao). 1972. *Phủ Biên Tạp Lục* (撫邊雜錄). Saigon: Phủ Quốc Vụ Khanh Đặc Trách Văn Hóa.

Li, Tana. 1998. *Nguyễn Cochinchina, Southern Vietnam in the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ies*. Ithaca: SEAP, Cornell University.

Li, Tana and Anthony Reid. 1993. *Southern Vietnam under the Nguyen*.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Nguyễn Phúc Nghiệp. 1998. *Nhưng Trang Ghi Chép Văn Hóa-Lịch Sử Tiền Giang* (띠엔장의 문화-역사에 관한 여러 기록). Ho Chi Minh: Nxb. Trẻ.

Son Nam. 1997. *Đất Gia Định Xưa* (옛 자딘 땅). Ho Chi Minh: Nxb. Trẻ.

Taylor, Keith. W. 2013. *A History of the Vietname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ran Van Quy. 2002. "The Quy Hop Archive: Vietnamese-Lao Relations Reflected in Border-Post Documents Dating from 1619-1880." Mayoury Ngaosrivathana and Kennon Breazeale (ed.), *Breaking New Ground In Lao History: Essays on the Seventh to Twentieth Centuries*. Chiang Mai: Silkworm Books.

- Trịnh Hoài Đức (trans. Đỗ Mộng Khương & Nguyễn Ngọc Tinh).
1998. *Gia Định Thành Thông Chí* (嘉定城通志). Ho Chi Minh: Nxb. Giáo Dục.
- Vũ Đức Liêm. 2016. “Vietnam at the Khmer Frontier: Boundary Politics, 1802-1847.”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No. 20.
- Weber, Nicolas. 2011. “Securing and Developing the Southwestern Region: The Role of the Cham and Malay Colonies in Vietnam (18th-19th centuries).”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54.
- Wolters, Oliver. 1999. *History, Culture, and Religion in Southeast Asian Perspectives*. Ithaca: SEAP, Cornell University.

(2017.04.19. 투고, 2017.05.15. 심사, 2017.05.16. 게재확정)

<국문초록>

무왕(武王, 1738-1765) 시기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확장 추이:
제국으로 가는 길, ‘잠식지계(蠶食之計)’와
‘이만공만(以蠻攻蠻)’의 변주

최 병 욱

베트남이 메콩 델타로 영토를 팽창하는 역사 속에서 완거정은 두 개의 얼굴을 갖는다. 하나는 현재 베트남 영토 내에 있는 메콩 델타 거의 전부를 획득하는 데서 그의 공헌이다. 또 하나는 베트남 역사를 읽는 독자들의 눈을 현재의 베트남 영역에만 머물게 하는 그의 역할이다. 독자들에게 완거정의 메콩 델타 획득은 베트남 남진사의 마지막 단계로 인식된다. 그러나 완거정의 업적은 부분적이었을 뿐이다.

이 연구는 메콩 델타에서의 영토 팽창 추이에서 완거정 보다 무왕에 주목한다. 무왕의 목표는 완거정의 공헌에 의해 성취된 영토 획득보다 더 야심적이었다. 그리고 이 야심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국제 질서를 건설한다는 그의 꿈에 의해 추동된 것이며, 그가 건설한 수도 푸쑤언은 이 새 국제 질서의 중심지였다. 여기서 그는 황제가 되기를 희망했다.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자는 세 가지의 요소를 검토하고 있다. 첫째는 무왕 왕권의 성격이다. 두 번째는 메콩 델타에서의 군사 작전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셋째는 새로이 무왕의 판도로 편입된 땅의

성격에 대한 것이다.

북부 홍하 델타에 근거한 레 황실의 신하를 자처하던 선대 지배자들의 태도와 결별하면서 무왕은 즉위한 지 6년 뒤인 1744년 자신이 왕임을 선포했다. 행정 조직이 개편되었고 의복과 풍속도 북부의 것을 버리고 남국의 것을 제정하였다. 무왕은 캄보디아, 참파, 수사, 화사, 만상, 남장 등 조공국도 충분히 확보했다. 레 왕조와 비교해 이 조공국의 숫자는 더 많았으며 19세기 대남 제국의 조공국 수와 맞먹었다. 필자는 이 시점에서 무왕이 실제로 원했던 자리는 왕이 아니라 황제였음을 지적한다. 비록 무왕의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는 자신을 천왕이라고 칭함으로써 통상적인 왕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캄보디아 왕이 캄보디아 영토 내의 참족을 공격한 게 무왕에게는 캄보디아에 개입하는 충분한 이유로 작용했다. 무왕은 이 참족이 자신의 신복이라 여겼다. 왕은 그들이 자신의 판도 내에 있는 참 즉 순성진 참인의 일부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무왕은 1750년에 캄보디아에 전쟁을 선포했다. 동시에 그는 태국왕에게 외교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서 그는 캄보디아가 자신의 배타적 조공국임을 천명했다. 캄보디아의 영토였던 메콩 델타에의 공격을 개시하기 전에 무왕은 푸쑤언을 새로 건설해 제국의 위상에 걸맞는 권력중심지로 삼았다. 인플레이션, 기근, 경제 왜곡 등도 이 시기를 특징짓는 면모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무왕의 메콩 델타 진출 이유라고 이야기되어 온 이런 경제적인 측면보다 제국 건설자로서 무왕이 보이던 적극적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며 이런 정책에 기초한 영토 팽창의 욕구가 메콩 델타의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데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1754년부터 3년 동안 현재 베트남의 영토에 해당하는 메콩 델타 대부분이 무왕의 영토로 편입되었다. 여기에는 완거정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무왕이 차지하고자 한 영역의 범주는 여기에 더해 메콩

오른편에 해당하며 현재의 사이공보다 위쪽에 있는 껌뽕짬, 프레이 비엵, 스바이리엵을 포괄했다. 많아진 조공국의 수에 걸맞게 제국의 영토는 넉넉히 확대되어야 했다.

무왕의 전략은 ‘잠식지계’와 ‘이만공만’의 변주곡이었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무왕은 하부캄보디아에 해당하는 델타를 야금야금 차지했다. 이는 누에가 뽕잎을 먹는 것과 같다는 게 일반적인 이해 방식이다. 그러나 무왕의 최종적 목표는 위에서 언급한 메콩 델타 세 개의 주까지 다 먹어치우는 것이었다. ‘다 먹어치운다’는 건 ‘잠식’의 또 다른 의미이자 적용이었다. 무왕은 현 룡안 지역으로부터 쩌우독에 이르기까지의 땅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참인을 이용해 캄보디아를 쳤다. 이것은 ‘이만공만’의 표준적 적용이었다. 이에 더해 그는 막씨가 관할하던 중국인 망명자들을 이용해 하띠엵과 그 주변 지역을 캄보디아 왕으로부터 취했다. ‘이만공만’의 또다른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19세기에 출현할 응우옌 왕조의 제국 질서 뿌리를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을 주장한다. 제국 질서는 홍하 델타에 근거한 대월 제국 왕조들의 오랜 역사의 결과물이 아니라 푸쑤언에 앉은 무왕의 신 세계질서를 계승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만공만’과 ‘잠식지계’는 무왕의 후손들에게 여전히 유용했다. 그의 손자인 자룽은 타이, 크메르, 라오, 중국인, 산지민, 유럽인 같은 ‘만’을 이용해 또다른 ‘만’인 ‘떠이썬 도적떼(西賊)’를 이겼다. 떠이썬에는 수많은 중국인 및 중국 해적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참인, 산지민이 있었다. 무왕의 증손자인 민망 황제는 화려한 제국을 건설했다. 동시에 그는 캄보디아와 참 영역을 뭉뚱 먹어치우면서 영토 확장에도 골몰하고 있었다.

주제어: 잠식지계, 이만공만, 무왕, 완거정, 메콩 델타, 캄보디아, 제국 질서

<Abstract>

Territorial Expansion the King Võ (Võ Vương, 1738-1765) in the Mekong Delta:

Variation of *Tám Thực Chi Kế* (strategy of silkworm nibbling) and *Dĩ Man Công Man* (to strike barbarians by barbarians) in the Way to Build a New World Order

CHOI Byung Wook
(Inha University)

Nguyễn Cư Trinh has two faces in the history of territorial expansion of Vietnam into the Mekong delta. One is his heroic contribution to the Nguyễn family gaining control over the large part of the Mekong delta. The other is his role to make the eyes of readers of Vietnamese history be fixed only to the present territory of Vietnam. To the readers, Nguyễn Cư Trinh's achievement of territorial expansion was the final stage of the *nam tiến* of Vietnam. In fact, however, his achievement was partial.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King Võ instead of Nguyễn Cư Trinh in the history of the territorial expansion in the Mekong delta. King's goal was more ambitious. And the ambition was propelled by his dream to build a new world, and its order, in which his new capital, Phú Xuân was to be the center with his status as an emperor.

To improve my assertion, three elements were examined in this article. First is the nature of Võ Vương's new kingship. Second is the preparation and the background of the military operation in the Mekong Delta. The nature of the new territory is the third element of the discussion.

In 1744, six years after this ascending to the throne, Võ Vương declared he was a king. Author points out this event as the departure of the southern kingdom from the traditional dynasties based on the Red River delta. Besides, the government system, northern custom and way of dressings were abandoned and new southern modes were adopted. Võ Vương had enough tributary kingdoms such as Cambodia, Champa, Thủy Xã, Hoả Xã, Vạn Tượng, and Nam Chưông. Compared with the Lê empire, the number of the tributary kingdoms was higher and the number was equivalent to that of the Đại Nam empire of the 19th century. In reality, author claims, the King Võ's real intention was to become an emperor. Though he failed in using the title of emperor, he distinguished himself by claiming himself as the Heaven King, Thiên Vương.

Cambodian king's attack on the thousands of Cham ethnics in Cambodian territory was an enough reason to the King Võ's military intervention. He considered these Cham men and women as his amicable subjects, and he saw them a branch of the Cham communities in his realm. He declared war against Cambodia in 1750. At the same time he sent a lengthy letter to the Siamese king claiming that the Cambodia was his exclusive tributary kingdom. Before he launched a fatal strike on the Mekong delta which had been the southern part of Cambodia, Võ Vương renovated his capital Phú Xuân

to the level of the new center of power equivalent to that of empire for his sake. Inflation, famine, economic distortion were also the features of this time. But this study pays attention more to the active policy of the King Võ as an empire builder than to the economic situation that has been told as the main reason for King Võ's annexation of the large part of the Mekong delta.

From the year of 1754, by the initiative of Nguyễn Cư Trinh, almost whole region of the Mekong delta within the current border line was incorporated into the territory of Võ Vương within three years, though the intention of the king was to extend his land to the right side of the Mekong Basin beyond the current border such as Kampong Cham, Prey Vieng, and Svai Rieng. The main reason was Võ Vương's need to expand his territory to be matched with that of his potential empire with the large number of the tributary kingdoms.

King Võ's strategy was the variation of 'silkworm nibbling' and 'to strike barbarians by barbarians.' He ate the land of Lower Cambodia, the region of the Mekong delta step by step as silkworm nibbles mulberry leave (general meaning of *tám thực*), but his final goal was to eat all (another meaning of *tám thực*) the part of the Mekong delta including the three provinces of Cambodia mentioned above. He used Cham to strike Cambodian in the process of getting land from Long An area to Châu Đốc. This is a faithful application of the *Dĩ Man Công Man* (to strike barbarians by barbarians). In addition he used Chinese refugees led by the Mạc family or their quasi kingdom to gain land in the region of Hà Tiên and its environs from the hand of Cambodian king. This is another application of *Dĩ Man Công Man*.

In sum, author claims a new way of looking at the origin of the imperial world order which emerg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It was not the result of the long history of Đại Việt empires based on the Red River delta, but the succession of the King Võ's new world based on Phú Xuân. The same ways of *Dĩ Man Công Man* and *Tám Thực Chi Kế* were still used by Võ's descendents. His grandson Gia Long used *man* such as Thai, Khmer, Lao, Chinese, and European to win another *man* the 'Tây Sơn bandits' that included many of Chinese pirates, Cham, and other mountain peoples. His great grand son Minh Mạng constructed a splendid empire. At the same time, however, Minh Mạng kept expanding the size of his empire by eating all the part of Cambodia and Cham territories.

Key Words: *Tám Thực Chi Kế*, *Dĩ Man Công Man*, King Võ, Võ Vương, Mekong Delta, Imperial World Order, Cambodia, Nguyễn Cư Trinh